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22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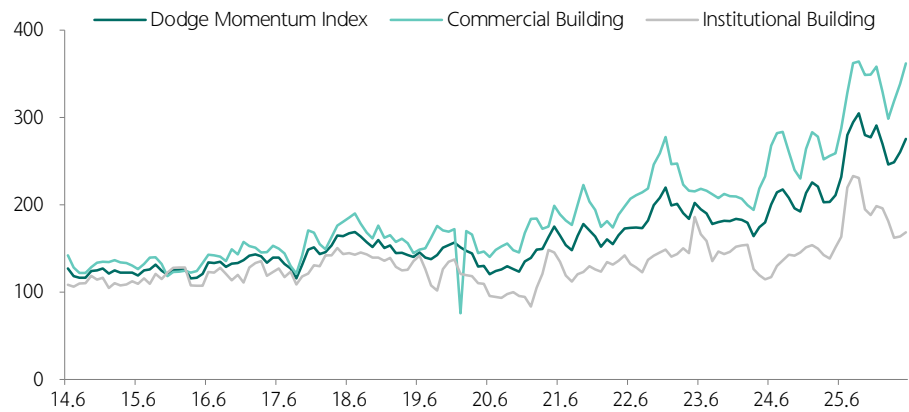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하반기에도 AI 인프라와 리쇼어링에 집중 필요

5월 미국 건설 착공 역사적 고점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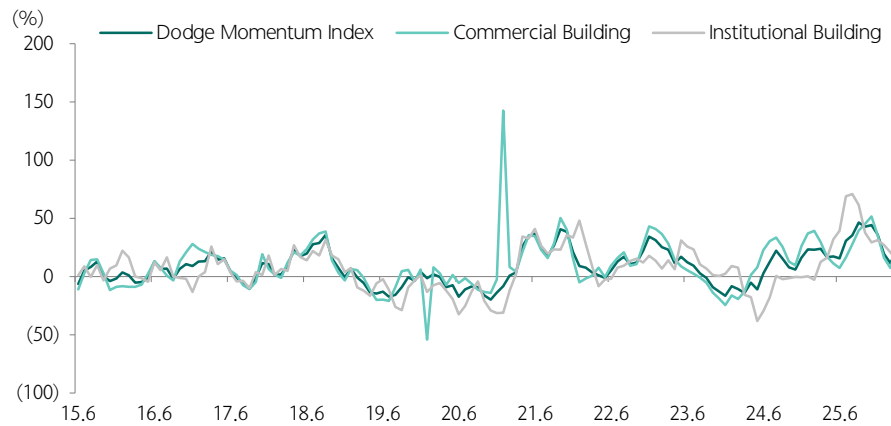
- 우리가 하반기에 추천했던 미국 AI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5월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Dodge Momentum Index)는 역사적 고점권이며, 건설 착공 지표(Dodge Construction Starts)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지난 고점 2025년 6월). 미국 건설 계획 지표는 비주거용 건설지출을 12-18개월 선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건설 계획 지표가 강해져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던 것을 감안하면 3분기부터 미국의 건설이 활발해질 여지가 있다. 건설 사이클의 전면 회복은 아닐 것이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력망 등과 제조 리쇼어링 관련 메가프로젝트가 지표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 5월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는 275.7(YoY +30.7%, MoM +5.9%)로 역사적 고점을 다시 향하고 있다. 건설 계획 지표를 구성하는 상업용 건설 계획은 362.2(YoY +39.9%, MoM +6.9%), 기관용 건설 계획은 168.6(YoY +11.3%, MoM +3.1%)이다. 5월 건설 계획 지표를 이끈 것은 데이터센터 건설이다. 헬스케어 및 리테일, 오피스 등 데이터센터 외 일부 건설 계획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데이터센터를 제외한 상업용 건설 계획 성장률은 전년 대비 6.6% 수준이다. 비주거용 건설이 강한 회복을 보인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 5월 미국 건설 착공 지표는 1조 7,780억 달러(YoY +54.7%, MoM +34.1%)다. 지난 역사적 고점이었던 2025년 6월 기록을 경신했다. 비주거용 건설 착공 6,470억 달러(YoY +41.9%, MoM +17.9%), 주거용 건설 착공 3,730억 달러(YoY +0.8%, MoM -2.1%), 비건물 건설 착공 7,580억 달러(YoY +134.7%, MoM +91.9%) 등이다. 5월 건설 착공 증가의 핵심 요인은 데이터센터, 제조,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과 관련된 건설이다.
- 비주거용 건설 착공의 견조한 성장은 전월보다 20.2% 증가한 데이터센터와 일반 사무실 등 덕분이다. 우리는 하반기 전망에서 인공지능이 두 가지 형태로 미국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부품 생산을 위한 제조 시설 확충이다. 데이터센터가 미국의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건설 착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조업 건설은 전월 대비 116.1%, 헬스케어 관련 건설은 전월보다 138.8% 급증했다. 소수의 대형 프로젝트가 지수를 견인했지만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5월 착공한 가장 큰 규모의 비주거용 건설 프로젝트로는 조지아주 리비안 전기차 공장(50억 달러), 앨라배마주 네비우스 데이터센터(30억 달러), 뉴욕주 월드 트레이드센터 상업용 타워(28억 달러) 등이 있다. 이 외 주차장(MoM -53.6%), 호텔(MoM -36.8%), 창고(MoM -17%), 상점(MoM -6.2%) 등의 건설은 부진했다는 점에서 AI와 리쇼어링 관련된 인프라 및 산업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주거용 건설 착공은 여전히 부진하다. 단독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 다세대주택 착공은 전월보다 3.7% 줄었다. 주거용 신규 건설과 관계가 깊은 산업의 업황은 다소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예가 태양광이다. SEIA는 2026년 1분기 미국 주거용 설치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나, 2025년 말 만료된 주거용 세액공제로 인한 일몰 효과라고 평가했다. 2026년 전체 주거용 시장은 오히려 21%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거용 프로젝트와 달리 대규모(유틸리티용) 프로젝트는 기술 기업들의 수요 덕분에 양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태양광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산업이라도 AI와 리쇼어링 등과 관련 있는 기업이 투자처로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표1.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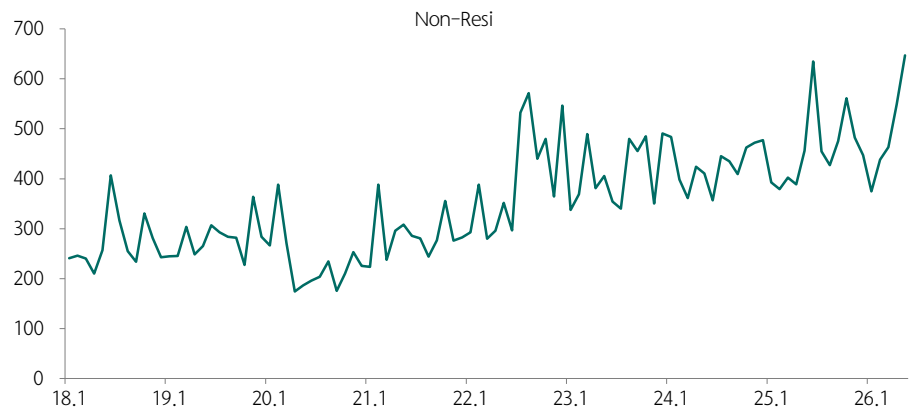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2.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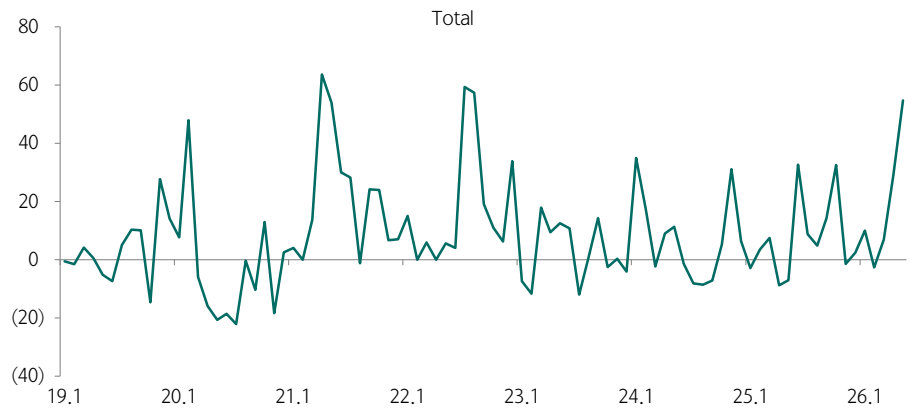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3. 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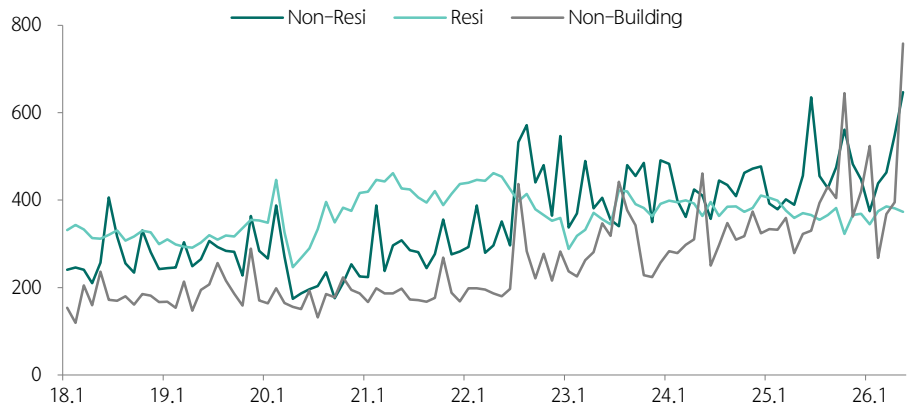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4. 미국의 건설 착공지표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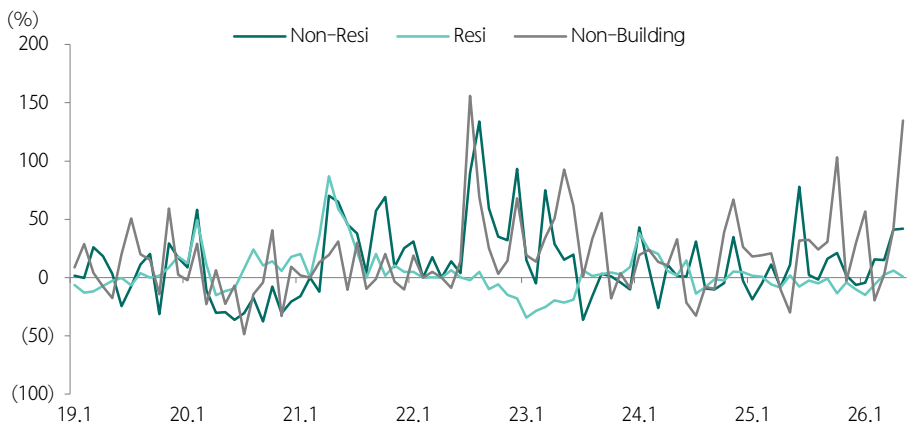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5. 미국의 건설 착공지표 세부항목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6. 미국의 건설 착공지표 세부항목 YoY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500.6	26,517.9	51,564.7	4,090.5	2,853.4
1W (%)	0.9	2.4	0.7	1.5	5.8

주) 6월 18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6월 15일~6월 19일) 리뷰: 지정학적 위기 해소, 반도체 랠리 지속

- 지난주 미국증시 3대지수는 지정학적 위기 해소와 함께 상승했다. 다소 보수적인 연준위원들의 회의 결과가 있었지만 중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기술주 및 성장주의 상승이 특징적이다. 미국증시 3대지수의 수익률은 다우지수 +0.7%, S&P 500 +0.9%, 나스닥 +2.4%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8%, 러셀 2000지수는 0.9% 하락했는데, 기술주와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가치 및 중소형주보다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장주 ETF(VUG)와 가치주 ETF(VTV)의 수익률은 각각 +2%, -0.3%다.
- 6월 FOMC 결과는 시장 전망처럼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FOMC 성명서는 매파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점도표에서 18명의 위원 중 올해 9명이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3월 보고서엔 올해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이 없었다. 2027년과 2028년 중간값도 3월 대비 상향됐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연준의장(케빈 워시)의 첫 FOMC였다. 케빈 워시 의장은 취임 전부터 연준이 제공하는 포워드 가이드언스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예고한 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케빈 워시는 현재 정책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새로운 연준 의장은 미래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과 정책 판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성명서는 사실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빈 워시에 대해 매파적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앙은행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워시 의장은 통화 정책 수행 관련 연준 커뮤니케이션, 대차대조표, 데이터 출처 활용 및 의존, 전환기 시대 생산성과 일자리,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 5개 영역에 대한 테스크포스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 GICS Level 1 기준 상승 상위섹터는 정보기술(+3.1%), 산업재(+2.6%), 커뮤니케이션(+1.1%), 경기소비재(+0.8%) 등이다. 하락 상위는 에너지(-6.6%), 부동산(-3.4%), 헬스케어(-3%), 필수소비재(-2.9%) 등이다. 에너지의 부진은 유가 급락 영향이다. 방어적 성격의 부동산,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등은 지정학적 위기 해소 덕분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선호도가 낮아졌다. 정보기술은 반도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3% 상승했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와 非-M7 ETF(XMAG)의 수익률은 각각 0.8%, 0.9%다. M7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2.9%), 테슬라(-1.5%)만 하락했다(NVDA +2.7%, AMZN +2.4%, AAPL +2.4%, GOOGL +2.3%, META +1.8%).
- 상장 후 전 세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스페이스X는 6위로 내려갔다. 현지시각 19일 스페이스X의 20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 소식이 있었다. 스페이스X는 IPO로 86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일주일 만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발행 예정 채권은 10년 만기로 알려져 있으며, 금리는 미국 국채보다 1.35~1.5%p 높은 수준에서 제시될 여지가 있다고 전해졌다. 조달한 자금은 스페이스X가 3월에 빌린 200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론을 해소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 이번 주(6월 22일~6월 26일) 프리뷰: 마이크론 실적, PCE 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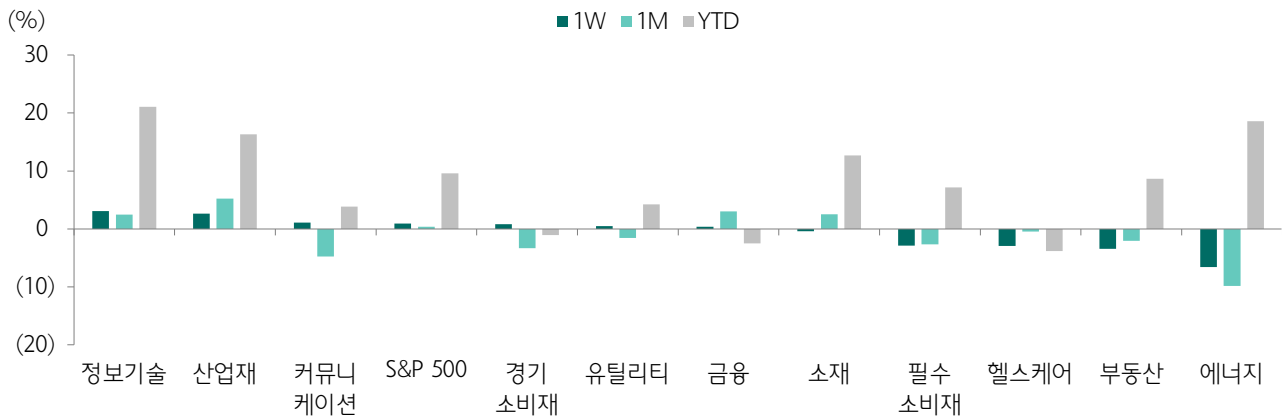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마이크론의 실적이다. 호실적과 견조한 전망치를 예상한다.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이번 분기 및 다음 분기 매출총이익률과 자본지출이다.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단기 하락 구간이 있었다. 실적과 가이드언스는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실적 피크아웃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적과 가이드언스에서 견조한 매출총이익률을 제시한다면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보단 믿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이크론은 FY 1Q26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가이드언스로 Non-GAAP 기준 매출총이익률 81%를 제시했다. FY 1Q26 매출총이익률 74.4%보다 약 6.6%p 상향된 수치다. FY 2026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하기도 했다. Factset 예상치인 194억 달러를 상회했다. 양호한 이익 바탕이 있음에도 메모리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이익 전망치와 함께 예상보다 강한 투자 계획은 업황 정점에 대한 걱정을 자극했을 것이다. 강력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하면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드언스에서 80%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장참여자들의 걱정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 마이크론의 자본지출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이 자본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클의 주가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후 급락한 이유는 막대한 자본지출 및 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오라클은 AI 덕분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FY 2027 가이드언스를 9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자본지출 전망 최대 500억 달러를 유지했지만 이번 분기 자본 지출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견조한 수요다.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은 제한적인데, 가장 큰 병목 중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다. 마이크론의 생산 확대를 예상하지만 수요를 감안하면 확정된 계약분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다.
- 현지시각 6월 25일 발표되는 PCE 가격 지수도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지표다. 5월 핵심 PCE 가격지수 예상치는 YoY +3.5%, MoM +0.37%다. 시장 컨센서스인 YoY +3.3%, MoM +0.24%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관세와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난 FOMC에서 보수적인 연준의 기초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23일 레드북 YoY(이전치 9.4%) / 6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이전치 50.7) /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이전치 55.1) / 6월 S&P 글로벌 종합 PMI(이전치 51.5), 24일 5월 건축 허가(예상치 1,413,000 건, 이전치 1,423,000 건) / MoM(예상치 -0.7%, 이전치 4.4%) / 5월 신규 주택 판매(이전치 622,000 건) / MoM(이전치 -6.2%) /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8,263,000 배럴), 25일 1분기 GDP QoQ(예상치 1.6%, 이전치 1.6%) / 5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8%) / MoM(이전치 0.4%), 5월 핵심 PCE 가격지수 YoY(이전치 3.3%, 이전치 0.2%)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 5월 헤드라인 내구재 주문(이전치 8%) / 5월 핵심 내구재 주문(이전치 1.1%), 26일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예상치 48.9, 이전치 48.9) / 6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예상치 49.3, 이전치 49.3) / 6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예상치 4.6%, 이전치 4.6%) / 6월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예상치 3.4%, 이전치 3.9%)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26일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투표권 없음)가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은 23일 FDX / CCL, 24일 MU / PAYX / TCOM, 25일 DRI / SNX / MKC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6/18)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500.6	1.1	0.9	0.4	15.3	9.0	25.7	9.6
나스닥	미국	26,517.9	1.9	2.4	0.7	22.5	13.2	36.4	14.1
다우	미국	51,564.7	0.1	0.7	1.9	13.1	6.6	22.2	7.3
STOXX600	유럽	637.1	-0.3	0.6	4.2	9.2	8.4	18.9	7.6
KOSPI	한국	8,974.4	-1.0	11.6	23.4	55.7	123.2	201.4	113.0
KOSDAQ	한국	952.6	-4.8	-2.7	-12.1	-16.7	4.1	21.7	2.9
상해종합지수	중국	4,090.5	-0.4	1.5	-0.5	3.4	4.4	21.7	3.1
심천종합지수	중국	2,853.4	0.5	5.8	-0.3	10.2	14.5	44.9	12.7
항테크지수	홍콩	23,924.8	-1.6	-3.2	-6.6	-5.4	-7.3	1.7	-6.7
TOPIX	일본	4,034.7	-0.8	4.8	4.8	11.8	19.2	44.5	18.4
니케이 225	일본	71,073.8	0.0	7.6	17.4	33.2	43.6	84.7	41.2
니프티 50	인도	23,968.1	-0.8	2.3	1.5	4.2	-7.7	-3.3	-8.3
Vietnam	베트남	1,828.2	-0.1	2.2	-4.4	7.6	7.3	35.2	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6.1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정보기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3% 급등,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중심으로 정보기술 섹터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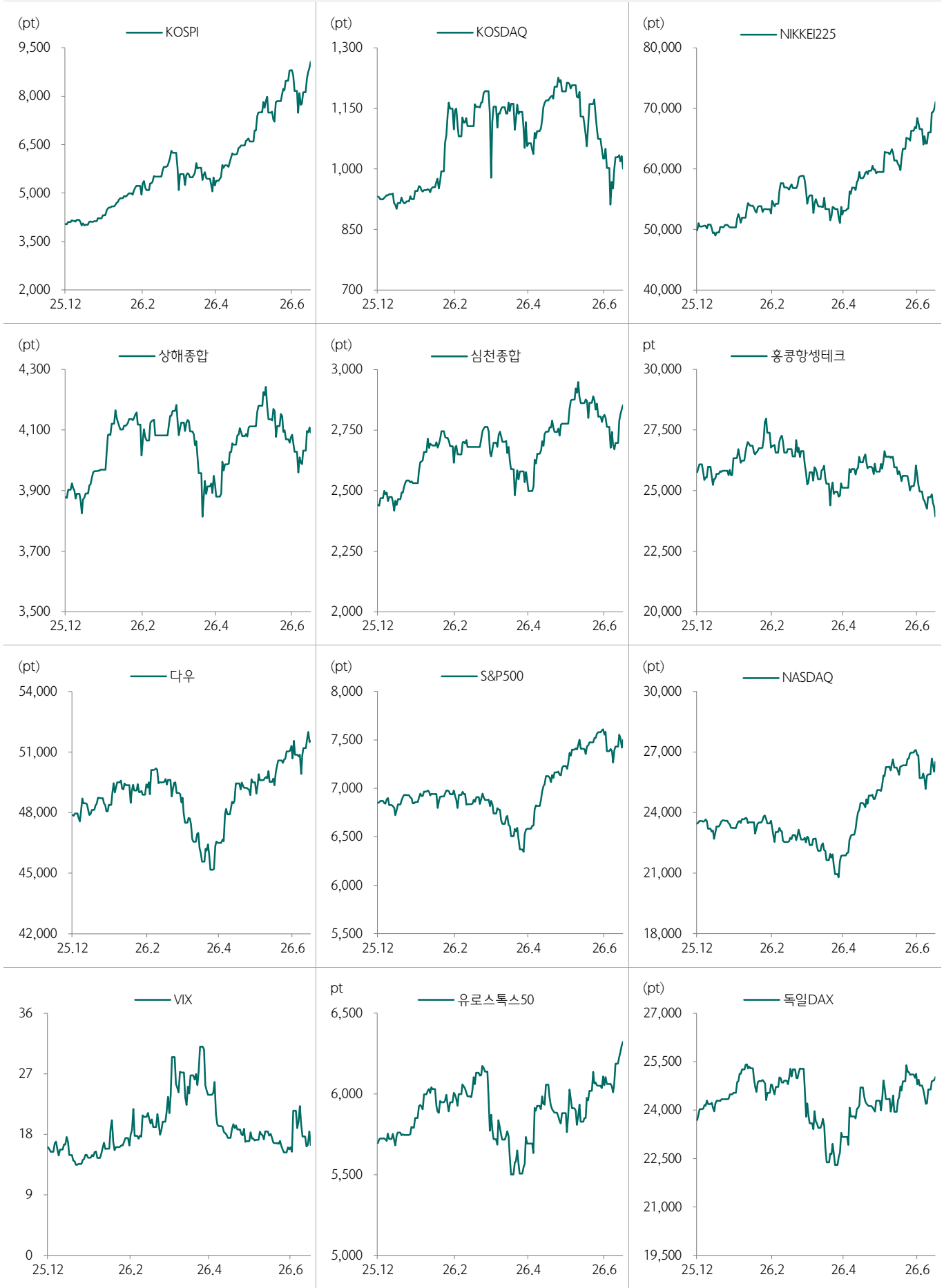
- 에너지: 미-이란 평화 협정 체결로 호르무즈 봉쇄 우려 해소되며 유가 급락, 에너지 기업 주가도 동반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6/15	<p>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19일 스위스서 서명식, 호르무즈 즉시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과 미군 해상 봉쇄 즉시 해제를 승인. 이란 외무부 차관도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즉각적 종전이 선언됐다"고 확인했으며, 중재국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도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 종전 서명식은 19일 스위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 합의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영구 포기·핵 프로그램 해체 대가로 동결 자산·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
6/18	<p>워시 체제 첫 FOMC서 금리 3.50~3.75%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이 17일 워시 신임 의장 체제 첫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 올해 들어 4차례 연속 동결. SEP에서 올해 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3월 3.4%에서 3.8%로 상향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점도표 제출자 18명 중 9명이 최소 한 차례 인상을 전망. 올해 PCE 물가 전망도 2.7%에서 3.6%로, 근원 PCE는 2.7%에서 3.3%로 상향. GDP 성장을 전망은 2.4%→2.2%로 하향. 워시 의장은 성명서를 대폭 간소화하고 향후 금리 경로 가이드를 사실상 제거했으며, 연준 운영 전반을 점검할 태스크포스 구성도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에 이어 연내 인상 가능성까지 보이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출
6/18	<p>트럼프 "애플, 인텔과 협력해 미국에서 칩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 미국에서 칩을 설계·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앞서 WSJ이 보도한 애플-인텔 합의를 직접 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테슬라(테라랩)에 이어 애플까지 인텔 파운드리 고객으로 합류했다고 강조. 미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약 10%, 90억 달러 투자)의 가치도 1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이상으로 9개월 만에 500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언급. 한편 구글도 자체 AI 칩 TPU를 인텔 파운드리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보도
6/18	<p>팀 쿡 "메모리 대란에 아이폰 가격 인상 불가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 쿡 애플 CEO가 17일 WSJ 인터뷰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 인상을 시인. 업계는 9월 출시 아이폰18 시리즈부터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AI 데이터센터 투자 급증으로 D램-낸드플래시 가격이 1년 새 4배 이상 급등했으며, 모건스탠리는 2027년까지 소비자 기기용 D램 공급이 수요 대비 15% 부족할 것으로 분석. 쿡 CEO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홍수"라고 표현하며 자체 메모리 공장 건설 계획은 없다고 밝힘
6/19	<p>미-이란 종전 MOU 이행 시작, 60일 협상 기간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밴스 부통령이 18일 "이란과의 종전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오늘 공식 시작됐다"고 발표하며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확인. 간밤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통항 정상화를 부각. 이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이란의 완전한 이행과 행동 변화 시에만 가능하다"고 강조. 19일 스위스 서명 행사는 전날 정상 간 원격 서명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 WSJ 등은 "미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는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이 공식화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 밴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MOU 존중과 레바논 공격 자제를 촉구
6/19	<p>美 FERC,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연결 가속화 명령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을 승인. 기존에는 수년이 걸리던 전력 신청 처리 절차를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불만 억제 차원의 조치이기도 함
6/19	<p>메타, 크루소와 AI 컴퓨팅 계약으로 총 1.6GW 발전 용량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가 크루소가 개발하는 텍사스 차일드레스-미주리 워런턴 데이터센터에서 총 1.6GW 규모의 AI 연산 용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제공 시점은 미공개. 메타는 루이지애나에 최대 5GW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 캠퍼스도 건설 중이며, 향후 수년간 AI 인프라에 최소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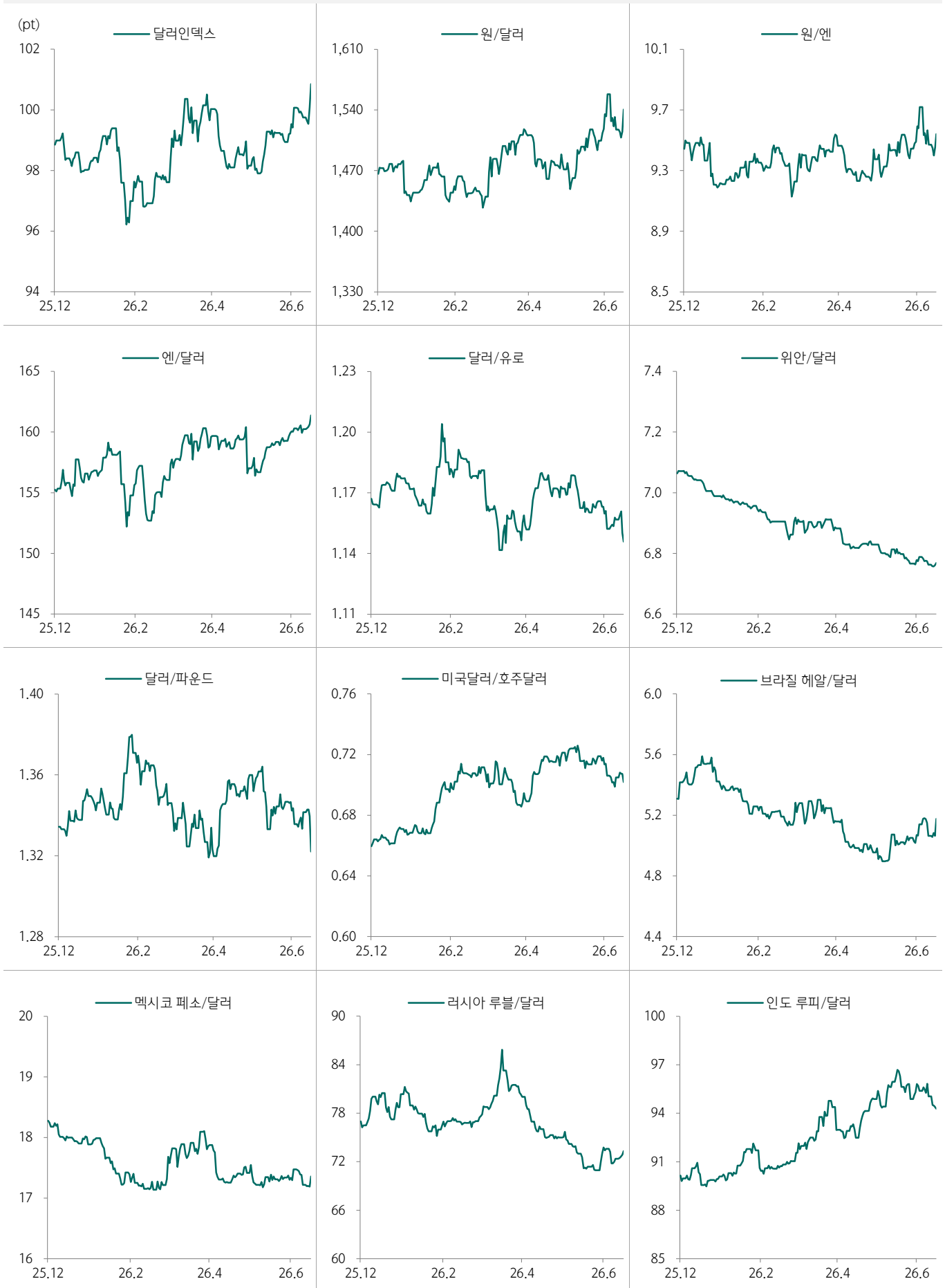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6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5
HPE CRDO SAIC	PANW DG ULTA GTLB BWLP SIG	AVGO CRWD MDT M PAYP FIVE SSL VEEV	CIEN IOT PL LULU RBRK COO GWRE DOCU	ABM
8	9	10	11	12
VFS CPB MTN	SJM UEC CASY SAIL	ORCL CHWY GME	ADBE LEN RH LOVE	FRHC
15	16	17	18	19
	WLY	JBL KMX	ACN KR	FDS KMX
22	23	24	25	26
	FDX CCL	MU PAYX TCOM	DRI SNX MKC	
29	30			
	NKE STZ AVAV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6/2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P] (이전 50.7)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 (이전 55.1)
6/2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신규 주택판매 (이전 622K)
6/2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GDP (QoQ 이전 1.6%)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YoY 이전 3.3%)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6/2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전 4.6%)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이전 48.9)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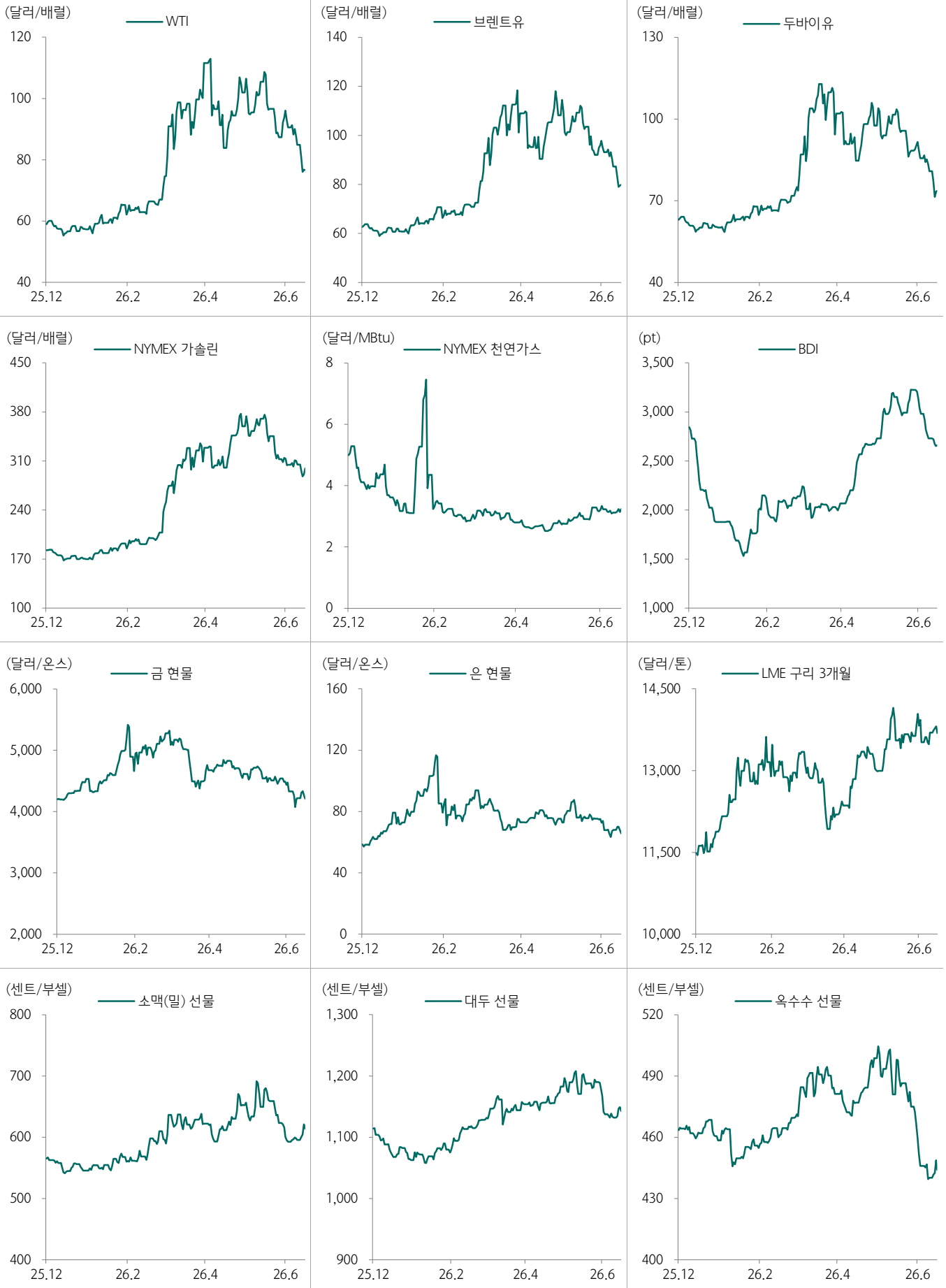
환율 추이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6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